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중심 비공개 영화제로 전환

JEONJU²¹
intl. film festival
2020.5.28-6.6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무관객으로 진행 결정
전주프로젝트마켓 등 지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경쟁부문 중심의 비공개 영화제로 전환, 개최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최 일정을 한 달여 늦춘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동안 안전한 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해 왔다. 상영작 발표를 비롯해 해외 게스트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 대담 및 토크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 그리고 스태프와 초청자,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방역 대책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데다 가족의 달 연휴로 인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전주국제영화제 역시 관객과 영화인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진행 중인 국가차원의 노력에 궤를 같이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고심 끝에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등 각 경쟁부문 심사위원과 초청작 감독 등 최소의 인원만 참여하는 무관객 영화제로 전환,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다가오는 5월 연휴를

맞이하며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만큼 전주국제영화제도 국민의 안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동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을 주도하는 영화와 영화인들을 발굴, 지원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전주프로젝트마켓을 비롯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전과 다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향후 코로나19가 충분히 안정되면 영화제 집행위원회와의 속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초청한 주요작들을 관객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지역의 예술단체가 우울감과 상실감 등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8일 서서학동 더숲요양병원에서 주차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내달 24일까지 15개 예술단체와 전주시, 비대면 예술치유 공연

전주시와 지역의 예술단체가 우울감과 상실감 등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8일 서서학동 더숲요양병원에서 주차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역의 15개 예술단체와 뜻을 모아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예술치유 공연인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아파트, 병원, 직장 등 예술치유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공연을 진행하고 다수가 집합하는 방식이 아닌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연 첫 날인 28일에는 서서학동에 위치한 더숲요양병원에서 그간 엄격하게 통제돼 가족들마저 만나기 어려웠던 어르신과 치료에 힘써왔던 의료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공연이 펼쳐졌다.

시는 이날 요양병원 주차장에 무대를 설치한 뒤 아리아, 아리아, 이상한계절 등 예술단체가 병동(관중석)을 향해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클래식과 퍼포먼스가 가미된 공연을 펼쳤다. 이에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의료진은 병원 내 창문을 통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김윤상 기자

예술치유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우울감을 해소해나갈 방침으로 다음 달부터 전주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과 버스킹 공연 등 '보따리다 힐링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치유 공연에 참여하는 출연단체는 전통예술 분야에 아리, 문화포럼 나니레, 도채비, 월향, 오정은 무용단, 소리지존이 참여하고 성악·클래식 분야에 프렌데레, 뮤지컬스, 클라우스케스트라, 어울림+, 클래식싱싱 등이다.

또 대중음악 분야에 이상한계절, 스타피쉬, 비보잉 분야 리스트포원, 재즈 분야에 김성수재즈트리오도 함께 한다.

더숲요양병원 관계자는 "외부단절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모두 지친 마음이었는데 이번 예술치유 공연이 병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다"면서 "오랜만에 어르신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니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비대면, 비접촉으로 펼쳐지는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예술치유 공연이 문화예술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이 공연을 통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예술인들과 공연문화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 공연 실황.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의 감동, 라디오로

정읍시, 가족의 달 맞아 내달 1일·8일 국악 라디오방송 통해 방송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 (주호중 연출·사성구 작)이 라디오를 통해 전파를 탄다.

시는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이 오는 1일과 8일(20시~21시) 국악 라디오방송 FM 국악당(전북 95.3MHz, 또는 국악방송 덩더쿵 어플)을 통해 2부작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정읍사는 착한 여인'은 정읍시립국악단이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의 희망을 잃지 않는 기다림을 모티브로 창작한

창극이다.

지난해 7월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초연 공연을 통해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10월에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관 놀음의 별 별창극 분야에 초청되어 남원 공연을 한 바 있다.

'정읍사는 착한 여인'은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주인공 정월의 이야기를 판소리 특유의 구성진 소리, 풍자와 희세 없이 터지는 해학적 웃음으로 풀어냈다.

사성구 작가는 정월은 '고난 속에서도 옹녀

(熊女)처럼 꽃잎이 어둠의 세월을 살아 견뎌온 우리 민족이며, 정읍사(井邑詞)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주는 희망가'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말하며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를 새롭게 해석했다.

주호중 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께 국악공연을 선보일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후더 좋은 무대로 찾아올 테니 앞으로의 공연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3-539-64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2020

방구석 태권도 대회'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태권도를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SNS 상에서 진행되는 '2020 방구석 태권도 대회' (이하 '방구석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리는 '방구석 태권도 대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성인부 등 3개 부문으로 태권도 수련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태권도를 표현한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 링크(https://forms.gle/hLF3btBYCraJW3A)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SNS 업로드시에는 #방구석태권도대회, #방구석태권도, #태권도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대회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추천한다.

'방구석 태권도 대회'는 표현성과 정확성, 공간 활용성, 재미와 흥미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두어 인원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니트·한지섬유의 사업화 촉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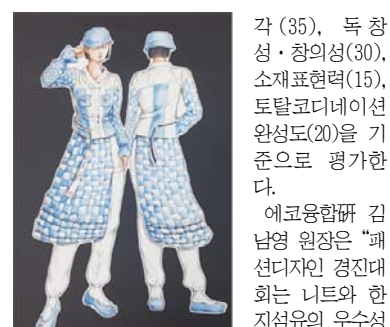
ECO융합섬유연구원,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ECO융합섬유연구원(김남영 원장)은 참신한 신진디자이너 발굴 및 전복의 특화 섬유소재인 니트와 한지섬유의 인지도 향상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9회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취·창업 7년 이내의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제9회 경진대회 수상작에는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500만원), 금상 전라북도지사상(300만원), 은상 익산시시장상(200만원), 동상(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상, 연구원장상), 특별상(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상) 등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이날 경진대회 심사는 실용성·상품화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며, 1차 스타일화 심사, 2차 실물영상 심사를 하고 최종 작품 패션쇼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1차 스타일화 심사는 디자인 및 컬러코디감

각(35), 독창성·창의성(30), 소재표현력(15), 토탈코디네이션 완성도(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에코융합 김남영 원장은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니트와 한지섬유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 제품은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9회 니트 &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역할 고민

전주대 이용욱 교수 '정보지식화 사회와 인문공학' 출간

전주대학교 이용욱 교수(한국어문학과)는 저서, '정보지식화 사회와 인문공학(역락)'을 출간했다. 이 교수는 '인문공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반인반기(半人半機)의 캔타우루스들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고, 예술과 기술이 협업하고, 지식은 도서관이 아니라 구글의 DB에 연결이 쌓여있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고 있는 시대에 인문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의 방향이 지식을 정보화하는 데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보의 지식화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며, 인간의 관점에서 기술을 이해·해석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인문학 연구방법론, '인문공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인문공학은 기술을 인문학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실용과 효율, 편리의 세계를 인간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하이퍼텍스트는 인간의 정신적 사유 체계를, 마우스는 인간의 육체적 감각 체계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사유하고 반성하는 또 다른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교수는 전주대 인문대학장, 이야기문화연구소장, 국어문화회장 등을 역임한 중견학자로 1996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문화론'을 제기했고, 그 후 '문학, 그 이상의 문학', '온라인게임스토리텔링의 서사시학' 등 내놓는 저서마다 문학연구의 영역과 시야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정보지식화 사회와 인문공학' 책 표지

전주대, 제5회 손편지 쓰기 공모전

전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세종 나신 날(5월 15일)을 기념해 아름다운 우리 말글에 자긍심을 키워가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종대왕께 손편지 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용지 및 분량의 제한도 없다.

응모 방법은 전주대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korean.j.ac.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편지와 함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자세한 문외는 전주대 국어문화원(063-220-3095, 3222)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